

# “거점·마을학교 운영이 농산어촌교육 대안”

### 전남도교육청 내일 ‘농산어촌 교육활성화 포럼’ 개최

### 우수교원 확보·교장, 교감 역할 재조정 등 방안 제시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가 잇따르고 있다. 농산어촌으로 이뤄진 전남 역시 지난 30여년간 모두 822개의 학교(초중고)가 문을 닫았다. 폐교되지 않은 학교 역시 적은 학생수로 시설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교원은 늘상 부족한 농산어촌의 경우 학교가 있더라도 적절한 교육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농산어촌교육 발전 대안으로 지역 거점학교 강화, 연중무휴학교·마을학교 운영, 우수교원 확보, 교장·교감 역할 재논의, 일관된 지원정책 등이 제시됐다. 오는 15일 오전 10시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리는 ‘2018. 농산어촌 교육활성화 포럼’에서다.

발표자로 나선 순천대 이병환 교수(사법대)는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역 거점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력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거점학교는 인접한 소규모학교 2~3개를 학교군(群)으로 묶고 이 가운데 한 학교에 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을 집중, 학교군 전체의 교육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전남에서는 시군에서 거점교가 운영 중이다. 거점학교 운영지역의 경우 기존 농산어촌학교 학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역 교육력이 강화되는 강점은 있으나 학교군으로 묶인 나머지 학교는 폐교하게 돼 일부 주민, 학생의 반발이 뒤따르는 단점도 있다.

이 교수는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연중무휴학교 및 마을학교 운영도 농산어촌 교육발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중무휴학교는 평일 일과 후는 물론 주말 및 방학 중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대신해 학교가 학습과 생활공간의 역할을

을 하도록 교육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다. 학교의 교육공간이 없어 다수 학생들이 하교후 사실상 방치되는 농산어촌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이 경우 교사 확보가 관건이 된다.

마을학교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해서로 자원을 공유할 뿐 아니라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일상에서 배움을 모색하는 학교다. 학교가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과 주민,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

다. 이 교수는 어떤 경우든 우수교원 확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교원들의 정주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 진안초 윤일호 교사는 교장·교감 역할의 재논의를 통해 농산어촌 교육력을 끌어올리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윤 교사는 “학교 업무분장표를 보면 교장은 ‘통할’, 교감은 ‘관리’로 된 경우가 많다. 사전적 의미로 통할은 모두 거느려 다스림, 관리는 사람을 통솔하고 지휘, 감독함이라고 나와 있다”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교장이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말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윤 교사는 “일부 교장, 교감의 경우 교사가 병가를 냈을 때도 보강수업조차 들어가지

않는다”며 “교장과 교감도 엄연히 교사가 시대의 흐름과 농산어촌학교의 부족한 교사 수를 생각하더라도 교장, 교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무지개학교지원센터 최관현 과감교사는 지원정책의 일관성과 꾸준한 지원을 강조했다.

최 교사는 “전남 A학교의 경우 혁신학교를 시작하고 추진해왔던 교사들이 근무하던 학교를 떠난 뒤 외부 전입생이 줄어 학생수가 감소돼 돌아서 매우 안타깝다”며 “혁신학교를 추진했던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됐더라면 꾸준한 성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khh@



소외계층에 전달할 추석 송편 빚기

추석을 앞두고 13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 봉사관에서 적십자 회원들이 광주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송편을 빚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4    달뜨기 10:43  
해질 18:42    달짐 21:48

별초 가야 하는데...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다.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면바다	동~남동	1.5~2.5	동~남동	1.5~2.5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면바다(동)	동~남동	1.0~2.5	동~남동	1.5~2.5
	면바다(서)	동~남동	1.5~2.5	동~남동	1.5~2.5

### ◇ 생활지수

**위험**  
식중독

**보통**  
자외선

**좋음**  
미세먼지

###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10:13	22:36	05:11	17:39
여수	05:32	18:00	12:03	--:--

### ◇ 주간 날씨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20(목)	21(금)
☁	☁	☁	☁	☁	☁	☁
22/28	21/27	19/28	17/28	17/28	18/27	18/27

## 내일까지 가을비... 일부지역 시간당 30mm 집중호우

15일까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14일에는 시간당 30mm 이상 집중폭우가 쏟아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여 호우에 대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남해안에 최고 120mm 이상 비가 내리는 등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30~8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15일까지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 기간 비의 영향으로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도 평년(26~27.7도)보다 1~2도 가까이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14일 오후까지 남해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남해안에는 호우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홀몸노인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 광주 서구·8개 협력기관 무한돌봄 서비스 시작

광주시 서구가 복지 협력기관과 함께 홀몸노인에게 ‘무한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서구는 지난 12일 서구노인종합복지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점, 대한미용사회 광주서구지회, 품앗이노인복지센터, 노블스튜디오, 서구약사회와 사업협력을 꾸려 노인 돌봄을 시작했다.

사업팀은 매달 홀몸노인 집을 찾아 전기·가스 안전점검, 미용·목욕, 반찬·생필품

지원, 장수사진 촬영 등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날은 농성2동 윤순이(82) 할머니 집을 찾아 빛바랜 벽지와 오래된 전등을 새것으로 교체하고, 머리 손질과 목욕 등을 도왔다.

윤 할머니는 “살면서 이런 호강은 처음”이라며 활동가들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서구와 협력기관은 지난 10일 업무협약을 맺고 홀몸노인 무한돌봄 사업 시행을 약속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전남 초·중·고 100% 무상급식

### 2학기부터 827개교 전면 시행...소요 예산 1952억

전남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됐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2학기부터 목포 동(洞)에 있는 고교에 무상급식이 이뤄지면서 도내 827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점심식사가 제공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단계적 추진으로 초·중학교, 읍·면과 광양시 등에 있는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지난 1학기 순천, 여수, 나주에 이어 2학기 목포 동 소재 고교까지 대열에 합류해

무상급식률 100%를 달성했다.

전국적으로는 강원, 전북, 세종, 인천 등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학생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1952억원으로 예상된다.

초·중학교 급식 예산은 전남도와 시·군에서 식품비를 절반씩, 교육청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부담한다.

읍·면 고교 급식 예산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며 시 단위 등 지역 고교는 해당 기초단체에서 식품비를, 교육청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맡는다. /김형호 기자 khh@

##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LPG트럭 사면 450만원 지원

### LPG협회·기아차 등과 협약

### 환경부 ‘희망트럭 지원사업’

환경부는 “대한LPG협회, 기아자동차,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약을 맺고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LPG 희망트럭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t 화물차를 구매하면 경우 신차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한LPG협회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이번달부터 내년 2월까지 대당 400만원씩 300대를 지원한다. 추가로 기아차에서는 대당 50만원의 차량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다문화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사업 접수와 안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홈페이지(www.childfund.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광주·목포에서 장지까지 30분거리

수목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